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3월 21일 (월)

News

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도 빗장 푸는 은행권
서울신문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폐지될 가능성 높아… 작년 12월부터 가계대출 3달 연속 감소
시중은행들, 대출 규제 완화 예고 가운데 그간 시행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우리은행,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대출 한도를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내로 변경

尹 공약에 은행권 결국 '두손'…예대마진 한 눈에 본다
뉴스1

금융당국과 업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방안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 최종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
월별 공시될 경우 한 눈에 각 은행들의 최신 예대금리차 현황 확인 가능해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 선택 가능… 다만 은행권은 월별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

'200만명 틈새시장' 외국인 대출 뛰어드는 은행들
동아일보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 은행권 최초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시장 개척… 현재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11개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연 11~15%로 대출
이번에는 작년 H-2 비자 받은 외국인으로 대출 대상 확대… 타 은행들도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중… 국내 체류 200만 외국인이 소매금융시장에서 새롭게 개척 가능 시장

토스뱅크, '매일 이자 지급' 이틀 만에 이자액 66억원 돌파
조선비즈

토스뱅크,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출시 이틀 만에 이자 지급액 66억원 돌파… 고객 41만 여명 이용, 평균 수령 금액 약 16,200원
지난 16일부터 매일 한 번씩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이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 일 복리 구조라 돈을 많이 보관할수록, 매일 이자 받을수록 유리

연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오미크론·유가급등 영향
아주경제

11개 손보사들의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 82.0% 기록… 작년 동기간 손해율보다 4% 이상 하락한 수치
손해율 안정세에는 오미크론 확산과 유가급증 때문… 업계 관계자 "3월까지는 안정적 수준에서 손해율 관리 가능. 방역지침 완화로 4월부터 변수"

생보사 영구채 5조 육박…'독이 든 성배' 명암
데일리안

IFRS17 도입 다가오면서 관련 수요 커질 것이라는 관측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영구채 이자 청구서가 새로운 과제 될 수 있다는 우려
국내 생보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잔액, 작년 11월말 기준 총 46,8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다만 발행으로 인한 압박이 타 채권대비 더 길게 작용한다는 점

발행어음 시장 커진다, 증권사 금리상승에 고금리 특판상품 속속 출시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업계, 이자마진 커짐에 따라 발행어음 시장 급성장 가능 시선 나와…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유치 경쟁 치열 전망
몇몇 증권사들은 높은 약정수익 걸고 공격적으로 고객 끌어모으는 전략 추진 중… NH투자증권, 연 10% 대 약정수익 제공의 발행어음 특판상품 내놓아…

리테일 잔치 끝났다…'IB 대전' 앞두고 증권사들 자본확충
연합인포맥스

증권사들, IB대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다시 나서는 모습… 비우호적 업황 대비 실탄 확보
NH투자증권 4천억원, 하이투자증권 2천억원 규모 자본확충… KTB는 RCPS 형태로 발행… 투자 여력 충분한만큼 IB부문에서 경쟁 치열할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